



정읍시장실에 초등학생들 찾아 시정 체험 활동

정읍시청에 초등학생들이 직접 찾아 시장과 대화하고 시정을 배우며 행정을 생생히 체험했다.

정읍시는 8일, 서신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 7명을 초청해 시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학생들은 시장실 방문을 비롯해 시청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시청 운영에 대해 배우고, 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어린이들이 행정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먼저 이학수 시장에게 직접 쓴 편지지를 전달했고, 시장실을 둘러보며 정읍시의 주요 정책과 시장의 일상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시장실 방문 후에는 재난상황실과 민원지적과를 차례로 견학하며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설명 듣고,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는 이번 체험이 어린이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티스테이 투어 2회차 개최

정읍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시티스테이 투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지역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정읍시지역활력센터와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2회차를 개최했다. 이번 투어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한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읍의 대표 관광지인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연결해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시티스테이 투어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 운영된다. 이번 2회차에는 관의 여행객 35명이 참여해 정읍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컨퍼런스센터에 모인 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무성서원을 찾아 역사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정읍의 깊은 역사와 정신을 체험했다. 이어 용산호 미르섬에서 자연을 만끽한 뒤, 숲문화관에서 생화모주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저녁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풍, 메이플 게스트하우스와 캡슐호텔에 숙박하며, 숲문화관 '달마루'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지역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둘째 날에는 조식을 마친 후 내장산 조산왕조실록길과 케이볼카를 탐방하며 정읍의 자연과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원도산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떡어울림플랫폼에서 떡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 뒤 모니터링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8일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협력단체와 함께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의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군민들에게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설명하고 반칙운전 다발 장소들 사례를 들어 근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창경찰서는 오는 8월까지 집중적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인사

◇5급 승진 ▲수도과 박수현 ▲
기법지원과 이길란 ▲디지털정보
담당관 이연숙 ▲자원순환과 조혜
란 ▲세무과 김운희 ▲도서관관리과 최지선 ▲자원순환과
이도영 보건행정과 조경아 ▲안전총괄과 정권우 ▲문화예
술과 고광룡 ▲토지정보과 이종구

원광대 의과대학, 지역사회 상생 위한 ‘첫걸음’

지역 보건의로 복지기관과 협약... 의료인력 양성·지역공동체 동반성장 위한 협력 다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지역사회 보건 의료 복지 상담시설 등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위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민선)이 지난 7일 오후 송산기병관에서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의료·상담 시설 등 50여 개 기관 및 단체장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혁신 사업의 본격 출발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라이즈(RISE) 연계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의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황진수 원광대학교 부총장,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 서일영 원광대병원 병원장, 최준호 원광대학교 RISE사업단 단장, 전북도에 복지기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황진수 원광대학교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산업 중심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각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의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원광대 의과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조기 임상 교육 △의과학 및 실용성 중심 교육과정 개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



사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학생들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지역 복지기관에서 직접 봉사하거나 실습을 수행하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료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유화영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의료인의 길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번 실습과 봉사를 통해 더 깊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협조를 넘어, 익산 지역을 포함한 전북권 전체가 의료복지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특별히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정읍 출신 박순덕 할머니, 인재 양성 장학금 4000만원 기탁

폐지와 강통 주위 평생 모은 재산 5년간 기부... 누적액 약 2억4000만원

정읍 칠보면 출신의 박순덕(89) 할머니가 고향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하며 다시 한 번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올산에 거주 중인 박순덕 할머니는 지난 7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난 6월 11일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뒤, 그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칠보면 수청리에서 태어난 박 할머니는 폐지와 강통을 주위 평생 모은 재산으로 꾸준히 고향에 기부해 왔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칠보면에 기탁한 금액만 1억 9650만원에 달하며, 이번 장학재단 기탁을 포함하면 누적 기부액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른다.

박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정읍이 늘 마음속에 있다"며 "고향의 후배들이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바란다



나눔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며,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 따뜻한 뜻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정성 어린 기부로 고향 사랑을 실천해주신 박순덕 할머니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덕 할머니의 변함없는 나눔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며,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규모 학교 강점 살린 학생중심 체험교육

번암초등학교, 인라인 스케이트 체험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장상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2025년 '동행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장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장(교장 송미령)은 이러한 지원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활동 참여를 위해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7일부터 매주 1회씩, 총 11회에 걸쳐 번암면 봉화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인라인스케이트 기본자세를 비롯해 균형 잡기, 직진, 회전, 멈추기 등 실생활과 연결되는 운동 기능을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에는 남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직접 방문해 실습 체험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기대와 열정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 과정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진행됐다. 수업 전·후 보호장비 착용 점검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체육관과 경기장에 안전수칙을 게시해 실천을 유도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체계와 구급약품도 상시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모든 학생이 개별적으로 집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협동심과 도전정신, 성취감을 함께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장 송미령 교장은 "작은 학교일수록 더 큰 울림을 주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 중심의 특성교육과정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황산면, 주민 참여 양심화단 가꾸기 사업 추진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무단투기 삼습지역에 꽃과 나무를 심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양심화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은 황산면 남산리 남암마을, 용마리 신기마을 등 2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물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양심화단 정비에 참여했다.

한편 양심화단 조성 이후 해당 지역에 쓰레기 투기가 감소하고, 주민들의 자부심과 마을에 대한 애착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교도소, 부동산원 직원 대상 교정시설 참관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8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소속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교정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김세중 지사장은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공직자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순풍 전주교도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교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시설 참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정행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임실군,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

임실군이 지난 4일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감성노동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재충전을 위한 '2025년 민원 업무 담당자 힐링 워크숍 및 친절 교육'을 개최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화훼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본청과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민원 응대 역량 강화 친절 교육, 나만의 유리정원·테라리움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및 스타일링 법, 마술사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심 민 군수는 "민원 최일선에서 군민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심리적 안정은 곧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임실 강진면, 주요 도로변 풀베기작업 실시

강진면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강진면 관내 주요 도로 13개소(약 55km)에서 이루어졌으며, 도로에 자란 잡초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선희 강진면장은 "주요 도로변 풀베기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강진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김제 백구면 복지기동대, 어르신 안전손잡이 설치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8일 복지기동대(대장 유종환)와 맞춤형복지팀이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 어르신 40세대를 방문해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활동을 펼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늘어나며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등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복지기동대가 대대적인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

유종환 복지기동대장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봉사로 백구면의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해 듣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한편 복지기동대는 전기, 건축, 보일러, 씽크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복지119'라는 이름을 걸고 백구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에 앞장서며 이웃을 섬기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인후지사 246-6855	010-9088-6874	남원지사 김제지사 545-1227	632-3996	익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순창지사 653-0444	632-0986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6645-9935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